

중국 기업의 대한민국 투자 전망 및 대응 방향

김 화 섭
(연구위원 · 국제산업협력실)
khwas@kiet.re.kr

〈요 약〉

기업집단화 정책으로 인해 경쟁력이 강화된 중국 기업은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해외직접투자(走出去) 장려책에 힘입어 2000년대부터 본격적인 해외투자를 시작했다. 선진국·개도국을 막론하고 다양한 지역에 해외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중국 기업은 한국에 대한 투자에도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2003년 1월에는 중국의 BOE그룹(京東方科技集團)이 하이디스 반도체 TFT-LCD 사업부를 인수했으며 2003년 12월에는 중국 기업(藍星集團)이 쌍용자동차 인수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중국 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 목적은 선진 기술 취득 및 한국 시장 침투에 두어질 것으로 보이며 투자 형태는 M&A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구미 기업과의 연대를 통한 투자도 예측해 볼 수 있다. 특히 용도별로는 중간재 및 부품에 대한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 도입국이 되는 한국(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 자본 도입이 중국 시장 접근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 중국과의 다양한 분업체계 구축을 통해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인지, 산업 공동화 예방에는 도움이 될 것인지 그리고 지역사회 개발 및 발전에 기여할 것인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 자본 도입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고 판단되면 중국 자본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기술과 중국 자본의 결합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밖에 부품 및 중간재 분야에 대한 투자 도입에 대해서는 대중국 수출과 연계된 전략이 필요하며, 지방 단위의 유치 시절단 파견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중국 비즈니스인들에 한해 차별적으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하겠다.

1. 머리말

1980년대 후반 중국은 기업집단화라는 정책을 실시한다. 당시 중국은 국유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집단화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기업이 집단화되면 자체적으로 개발된 기술이나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선진기술을 국민경제에 효과적으로 보급시켜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은 당시 일본의 자이바쓰(財閥)나 한국의 재벌이 기술개발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데에서도 벤치마킹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10여년이 지난 최근 중국의 상당수 기업들은 이러한 기업집단화 정책에 힘입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한편,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외환 보유고에서는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역 거래에 있어서도 세계 6위의 대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의 경제력이 강화되자 선진제국으로부터 위안화 평가 절상 압력이 강화되고 있는가 하면, 주변국가로부터는 선진국으로부터의 투자를 독식한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대국에 걸맞는 행동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주변국 및 선진국으로부터의 각종 비난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대외 경제정책이 필요했다. 이러한 새로

운 경제정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해외직접투자(走出去) 장려정책이다. 이러한 장려정책은 2002년부터 국가 전략으로 자리를 잡았다.

기업집단화 정책을 통해 힘을 가진 중국 기업들은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해외직접투자(走出去) 장려정책에 편승하여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인 미국, 유럽 및 일본 등에서도 기업을 매수하거나 생산거점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해외직접투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물론 중국 기업의 투자대상 지역에서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향후 한국에 대한 투자도 확대 및 활성화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한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走出去)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유추·예측해볼 필요가 있다. 유추·예측해본 다음 우리 업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연구해보는 것이 본고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하겠다.

2 한국에 대한 투자 추이 및 특징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2003년 말 현재 3,624건, 5억 2,200만 달러에 이른다. 투자 건수만 보면, 일본, 미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표 1〉 참조). 그러나 건당 평균 투자금액은 14만 4,000달러 정도로 미국 및 일본의 평균 투자금액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소규모이

〈표 1〉 중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현황(여타 국가와의 비교)

단위 : 건, 백만 달러

	2001		2002		2003		누 계 (1962~2003)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국제협력기구	1	16	1	-	-	-	117	272
미주 지역	766	5,584	588	4,859	566	1,841	6,919	35,101
(미 국)	658	3,889	488	4,500	451	1,240	5,986	27,538
아주 지역	2,076	2,343	1,421	2,269	1,483	1,486	15,198	26,249
(일 본)	591	772	474	1,404	495	541	7,719	13,256
(싱가포르)	58	190	48	146	44	236	453	2,730
(홍 콩)	71	167	86	234	62	55	675	1,813
(말레이시아)	117	785	70	210	36	417	567	6,494
(중 국)	812	70	442	249	522	50	3,624	522
(대 만)	32	314	28	9	35	15	303	719
(기 타)	395	45	273	17	289	172	1,857	715
EU(15개 국가)	306	3,062	264	1,663	282	3,061	3,420	27,641
기타 지역	269	287	161	310	263	79	1,443	1,854
합 계	3,418	11,292	2,435	9,101	2,594	6,467	27,097	91,117

자료 : 산업자원부.

주 : 1개 사업에 여러 나라가 투자한 경우 국별로 각각 건수를 계상함에 따라 다른 표와는 건수가 상이함.

며, 여타 아시아 국가의 평균 투자금액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는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 업종이 요식업 등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走出去) 가운데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2003년 1월 중국의 BOE그룹(京東方科技集團)이 하이디스 반도체 TFT-LCD 사업부를 인수한 것과 2003년 12월 중국 기업(藍星集團)이 쌍용자동차 인수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다. BOE그룹의 하이디스

반도체 TFT-LCD 사업부 인수는 중국에서 1949년 신중국 설립 이래 최대의 인수 사건으로 인정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매각 사실에 대해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 가운데 첨단 기술 유출에 따른 부메랑 효과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쌍용자동차 매각 의도와 관련해서도 이와 유사한 의견들이 많았다.

2004년 3월 현재 藍星集團의 쌍용자동차 인수는 무산되었다. 그런데 藍星集團의 쌍용자동차 인수가 왜 무산되었는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

다.¹⁾ 중요한 것은 중국 측이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려는 목적이 어떠한 의도에서 혹은 어떠한 전략에서 출발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제대로 파악해야만 향후 중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 어떠한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이디스 반도체 TFT-LCD 사업부 매각과 관련해 중국 측의 전략은 단기간에 첨단기술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중국 측은 기존 연구 인력(하이디스 반도체 TFT-LCD 사업부 인력) 등을 활용하여 중국에 TFT-LCD 공장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중국 에어컨 생산업체인 廣東美的가 일본 산요전기의 전자오븐 레인지 사업부를 인수한 다음 관련 인원 및 생산설비를 중국으로 이전하는 것과 궁극적으로는 맥을 같이 한다. 즉 기술 도입이 핵심 관심사항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쌍용자동차 인수 의도는 하이디스 반도체 TFT-LCD 사업부 인수와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 물론 중국 기업이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다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에 쌍용자동차 공장을 설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렇게 되었다면 쌍용자동차 인수나 하이디스 반도체 TFT-LCD 사업부 인수는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쌍용자동차 인수에는 또 다른 전략이 담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藍星集團 측은 쌍용자동차 인수 협상 당시 “동 그룹의 주력은 화공분야이지만 산하에 지프 생산과 자동차 정비사업 등을 위주로 하는 中車그룹이 있으며 일반 시장에도 영업기반이 있기 때문에 쌍용자동차의 중국 시장 진출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는 유통망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는바 중국 藍星 측은 이러한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런데 쌍용자동차가 여타 자동차에 비해 중국 시장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경쟁을 하려면 우선 가격 측면에서 우위를 보여야 한다. 생산 원가를 낮추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중국 측이 당장은 공장 설비를 중국으로 이전하지는 않겠지만 부품²⁾ 등을 중국으로부터 조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전략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절강성의 萬向集團이 미국 UAI사의 주식을 구입한 다음 동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전략을 연상케 한다. 결국 중국 측이

1) 쌍용자동차 인수 과정에서 같은 중국 기업인 藍星集團과 상해자동차가 경쟁을 벌이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해외투자자와 관련된 외환관리 권한이 지방에 있는 이른바 분권화 정책에 기인하고 있다.
2) 여기서 부품이라 함은, 藍星 측 입장에서는 주로 자동차 내장용 화학재를 의미한다.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완성차 그 자체가 아니라 부품 및 중간재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BOE그룹의 하이디스 반도체 TFT-LCD 사업부 인수 및 藍星集團의 쌍용자동차 인수 움직임에는 부품 및 중간재 발전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³⁾ 지금까지 설명한 2건 사례의 특징을 요약한 것이 <표 2>이다.

한편, 2004년 4월 藍星集團의 자산은 종전에 비해 10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국영 화학업체 가운데 상당수를 藍星集團에 합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藍星集團이 쌍용자동차 인수 협상을 원만하게 타결지었다면 인수에 필요한 자금도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방침은 이미 머

리말에서 언급한 ‘기업 집단화 정책’ 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3. 한국에 대한 투자 전망

중국 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 전망은 주요 목적, 투자형태, 제휴전략 주요 업종 및 정부의 태도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시장 개척 및 기술 습득에 중점

중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코스트 절감에 초점을 두지는 않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한국에서의 생산 코스트가 중국에 비해 크게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직접투자의 주요 목적은 시장 개척이나 선진기술

<표 2> 중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특징

대상 기업	특 징		
	주요 목적 (유사 사례)	형 태	중점 업종
하이디스 반도체 TFT-LCD 사업부	첨단기술 습득 (廣東美的의 일본 산요전기 전자 오븐 레인지 사업부 인수)	M&A	부품 및 중간재
쌍용자동차	시장 개척 및 확대(萬向集團의 미국 UAI사 인수)	M&A	부품 및 중간재

주 : 쌍용자동차의 경우 인수협상이 무산되기 전 특징을 의미.

3) 물론 지금까지 언급한 두 개의 사례를 가지고 중국 기업의 한국에 대한 走出去 특징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중국 기업들이 한국의 중간재 및 부품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3절에서 별도로 언급한다.

습득에 두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려는 중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생산된 부품을 한국의 쌍용자동차 생산 공장으로 수출하게 되면 이는 시장 개척이 주요 목적이 되는 해외직접투자가 된다. 만약 장기적으로 중국에 쌍용자동차 생산라인이 설립된다면(쌍용자동차가 중국 측에 인수된다면 그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목적은 중간재 및 부품 관련 기술 습득에 들 것이다. 자동차산업은 그 특성상 생산 시설이 부품 조달선과 클러스터를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부품 및 중간재 업체들이 대거 중국으로 이전하게 된다. 결국 중국의 입장에서는 부품 및 중간재 관련 기술을 상대적으로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이디스 반도체 TFT-LCD 사업부를 인수한 BOE그룹의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앞 절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이는 기술 습득에 중점을 둔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향후에도 한국에 대한 중국의 직접투자 목적은 시장 개척 및 기술 습득의 범위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낮다.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보다 산업 기술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국가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대부분 시장 개척 및 기술 습득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2) M&A가 주를 형성

한국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투자를 하게 되든지 아니면 선진기술 습득을 위해 투자를 하게 되든지 투자 형태는 그린필드(green field) 투자가 아닌 기존 기업을 인수하는 이른바 M&A 형태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생산라인을 건설하게 되면 선진기술 습득에 시간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비상장 기업 가운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M&A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는 전자, 반도체, IT(온라인 게임 포함)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 측은 이러한 기업 인수를 위해 한국의 전문 기관에 의뢰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실시하든지 간에 각종 기업 정보 수집 및 분석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M&A 사례에는 BOE 그룹의 하이디스 반도체 TFT-LCD 사업부 인수를 비롯하여 上海電氣集團의 일본 아키야마(인쇄회사)사 인수 그리고 華意集團의 미국 Moltech 전력회사 인수 등이 대표적이다.

(3) 브랜드 구입 증대

현재 한국의 다수 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 진출 마케팅을 위해 중국 브랜드를 구입하곤 한다. 그리고 이러한 예는 주로 스포츠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북경에는 國按이라는 축구팀이 있는데 이 팀의 정확한 명칭은 北京 現代 國按이다. 현대자동차가 축구팀의 명칭(브랜드)을 사들인 것이다. 물론 현대가 축구팀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팀 명칭 구입을 통한 스폰서이다. 이러한 스폰서 행위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행위의 일종이다. LG가 중국내 각종 체육대회에 스폰서를 하는 것도 브랜드 구입의 일종이다.

그런데 향후에는 중국 기업의 한국 유명 기업 브랜드를 구입하려는 행위(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992년 한·중 국교가 수립된 후 양국간 경제관계는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내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한국 기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과도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바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한국 기업의 브랜드 구입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4) 구미 기업과의 연대를 통한 직접투자

중국에 글로벌화된 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고는 하나 전반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를 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 특히 인재, 전략, 정보 분석 등의 측면에서 비교우위에 있지 못하다. 따라서 중국 기업들은 이러한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미 및 일본 기업과 합작으로 한국 기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예상해볼 수 있다.⁴⁾

선진 기업들과 합작을 할 경우 인재, 전략 및 정보 분석 등에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인데 특히 한국 일반인들에게 구미 자본은 거부감이 작으나 중국 자본은 반감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전략은 효과적일 수 있다. 上海汽車集團이 GM 대우자동차의 1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예가 여기에 속한다.⁵⁾

(5) 중간재 및 부품에 집중

세계무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은 한국과의 무역에서는 드물게 적자를 보이고 있다. 그것

- 4) 여기서 구미 및 일본 기업이라고 함은 중국내 활동 중인 기업을 의미한다. 중국은 자국내 이들 기업과 쉽게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합작 협상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5) 현재 중국에는 세계 500대 다국적기업 가운데 400여개 기업이 진출·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기업들 역시 한국에 대한 투자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중국 경제 환경의 특성에 기인하기보다는 모기업의 global strategy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도 그 적자폭이 매년 증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현상은, 중국의 대세계 수출이 늘어나면 우리의 대중국 수출도 늘어나고 중국의 대세계 수출이 줄어들면 우리의 대중국 수출 또한 줄어드는 것이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과 중국의 대세계 수출 증가율은 높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중국에 주로 어떠한 상품을 수출하기에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일까?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컴퓨터 부품, 무선 통신기기 부품, IC 반도체 등 중간재 및 부품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중국이 세계 시장에 많은 제품을 수출할수록 이러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및 부품을 한국으로부터 많이 구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중국의 대세계 수출 증대는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증대를 유발하여 한국의 수출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는 것이다.⁶⁾

어쨌든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발생시키는 요인 가운데에는 중간재 및 부품의 대량 수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중국이 한국에 대해 직접투자를 할 때 어떠한 용도의 품목에서 투자가 이루어질지 짐작할

수 있다. 향후 중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중간재 및 부품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중국 측의 하이디스 반도체 TFT-LCD 사업부 인수나 쌍용자동차 인수 의지도 중간재 및 부품 분야에서의 우선 투자 차원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6) 투자환경 개선 요청 전망

1) 중국 자본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 완화 요청

최근 한국에서는 외자를 우대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그 동안 지속되어 왔던 반외국인투자 정서가 크게 완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자본의 유입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의 정서적 거부감이 강하게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중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언론 등을 통해 이러한 거부감 완화에 앞장서 달라는 요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⁷⁾

2) 입국 절차 간소화 요청

중국의 비즈니스맨이 한국에서 기

6) 한국과 중국의 교역과 관련, 이러한 현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화섭(2003), “중국의 다양한 모습과 한국의 대응”, 『월간 KJET 산업경제』, 2003.12를 참조하기 바란다.

7) 중국에서는 언론이 많은 부분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언론 역시 정부로부터의 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 활동을 하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복잡한 입국 절차이다. 현재 중국인들이 한국 비자를 취득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는 기업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2004년 초 BOE 하이디스 회장이 입국하는 데에도 복수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우여곡절을 겪은 적이 있다. 중국 측은 기업인들에게만이라도 입국 절차의 간소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3) 각종 규제 완화 요청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할 때 각종 관련 규제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한국의 투자장벽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각종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를 요구하거나 KOTRA 등에 투자와 관련된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중국 투자 도입시 고려 요인

이미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자본이 한국으로 진출할 경우 중국은 한국 시장 개척 및 한국 기술 습득 등의 긍정적인 효과(이익)를 기

대하게 된다. 한편,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 자본을 유치할 경우 여타 선진국으로부터의 자본 유치에서 볼 수 있는 우수 기술 및 경영 노하우의 습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여타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중국 자본의 도입 여부 및 도입 전략 등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가급적 다음의 사항(긍정적 기대효과)을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1) 중국 시장 접근 용이성

중국 내수시장 확대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유통망 확보이다. 중국에서는 유통망을 확보하면 시장 진출의 절반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 유통시장이 지나치게 폐쇄적인바 외국인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이다. 유통망을 확보하는 전략으로는 현지 국유기업 등과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있다. 중국 국유기업 가운데에는 영업 실적 면에서는 그다지 뛰어나지 않으나 국내 유통망 확보에서는 강점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유통망이 확보된 다음에는 국내(한국) 선진 유통기법을 교육·보급하는 전략이 수반되어야 한다.

한편, 국내에 중국 자본이 유입될 경우에도 중국 내수시장 유통망 확보

에 기여할 수 있다. 만약 한국에 대한 투자를 원하는 중국 기업이 중국 내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다면 이러한 중국 자본을 유치한 국내 기업에도 이익이 된다. 물론 이 때에도 유통기법 및 교육 등은 한국 측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투자를 원하는 중국 측이 중국 내에서 어느 정도의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2) 원활한 분업체계 구축 가능성

분업체계에서도 유리한 점을 찾아볼 수 있다. ‘중국 시장이라는 용어는 없다’라는 말이 있다. 중국은 수개의 거점 단위(Mega Region)를 각각 하나의 독립된 국가처럼 독자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련 및 인근 지역은 국유 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 중심지로서 일본계 기업의 활동이 활발하다. 북경·천진 지역은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IT분야 연구개발 거점지역 역할을 하고 있다. 청도 및 인근 지역은 냉동야채 및 가공식품에서 비교우위가 있다. 또한 한국 기업이 다수 활동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상해 및 인근 지역(장강 삼각주)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모두 발전된 곳이다. 상해는 금융, 상업 및 물류의 중심지이며 인근 소주 및 항주는 디지털 가

전산업(제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문 및 복주 인근은 대만과의 상호 의존관계가 높은 지역이다. 심천 및 광주 인근 지역(주강 삼각주)은 세계 최대 컴퓨터산업 집적지로 평가되고 있다. 즉 이들 지역은 각기 다른 산업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내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또는 기 조성된 산업단지라 하더라도) 중국 수개 거점 지역의 산업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중국 거점 지역과는 산업적으로 차별화된 개발 전략을 마련한다면 중국 각 거점 지역과 차별화된 산업에 의한 분업뿐만 아니라 물류비용 격차에 의한 분업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상해 인근 지역 산업에 필요한 부품을 주강 삼각주 지역과 한국에서 생산할 경우 상해-한국간 운송거리가 상해-주강간 운송거리에 비해 짧은바 한국과 상해 지역간 활발한 분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중국 자본을 유치할 때 산업 입지 측면에서 이러한 요인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3) 산업공동화 가능성 예방

산업공동화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지표는 없으나 국내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산업공동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상공회의소의 200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향후

4~5년 이내 국내 산업공동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이 49.5%, 5~10년 이내 산업공동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이 40.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3년 6월 중소기업 중앙회가 37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향후 4~5년 이내 공동화가 발생할 가능성 있다는 답변이 54.7%, 향후 5년 이후 공동화가 발생할 가능성 있다는 답변이 34.9%로 나타났다.

특히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다면 그 대상지는 어디가 되느냐는 질문에서, 중국이라는 답변이 상공회의소 조사에서는 81%,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에서는 73.9%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는 향후 5년을 전후하여 국내 산업공동화 문제가 이슈로 대두될 것이며,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 대한 투자를 원하는 중국 자본이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면 중국 자본 도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볼 만하다.

(4)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기여

전세계 3,600만 인구에 달하는 화교는 각 주재 국가에서 막강한 경제력을 과시하고 있으며 차이나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화교들은 중국 본토와의 상호 투자 및 무역 등을 통해 강력한 경제적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화교들의 활동이 미약하다. 과거 한국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인해 국내 화교 숫자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60년대 초 약 8만명 정도에 달했던 화교가 현재 2만 여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화교네트워크를 활용한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여타 국가에 비해 미미한 실정이다.

향후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면 중국 자본의 국내 화교들에 대한 투자 및 연계 또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각지에 다수의 차이나타운이 형성될 것이며 중국 자본의 차이나타운 건설에 대한 지원도 기대된다. 특히 2005년 세계 화상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바 이는 중국 자본 국내 유입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자본의 국내 화상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이 확대되어 국내 화상들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면 이들을 활용하여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관광수입 확대 및 지역사회 개발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 또한 중국 자본 도입시 고려할 수 있는 요인이라 하겠다.

5. 대응 방향

(1) 한국 기술과 중국 자본의 결합 유도

국내에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설립 또는 확장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다수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굳이 국내 자본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중국 자본과의 합작도 추진해볼 만하다. 합작 계약에 생산라인을 한국에 설립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인은 중국 측 자본을 모색하는 데에도 비교우위가 없다. 정부 관련 부처, KOTRA 및 산업기술재단 등은 양국 간 각종 공식·비공식 모임을 통해 우수기술 보유 기업가들이 중국 자본에 접촉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한국 산업기술재단은 상해 과학기술 개발 교류 중심과 한·중 기술투자 상담회를 가지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중국 상무부와 공동으로 한·중 테크노마트를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KOTRA는 중국의 CCPIT와 정기적인 실무회의를 가지고 있다. 한편, 전자 업종의 부품 관련 업체는 이미 관련 연구소(국책 연구소)를 통해 중국 자본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2) 부품·중간재는 수출과 연계된 다양한 전략 필요

중국이 한국에 대해 직접투자를 할 경우 부품·중간재에 집중될 것이라고 이미 앞에서 언급한 적이 있다. 그런데 부품·중간재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바 중국 자본이 도입되면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자본이 동 부문에 집중 투자되어 중국에 대한 수출이 더욱 늘어날 수도 있는가 하면, 동 부문에서의 기술 이전이 이루어져 중·장기적으로 중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할 수도 있다.

실제 중국은 현재 중간재·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양한 주체(국유기업, 민간 기업, 산학 공동단체 등)의 동 산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는가 하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부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의 부품·중간재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면 이 또한 동 산업 육성전략의 일환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동 산업에서 중국 자본을 유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출 및 기술개발 등과 연계된 다양한 전략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3) 지방단위 유치 시절단 파견

중국의 경제성장에는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에 크게 기여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는 각종 조세상의 인센티브를 비롯하여 다양한 전략이 동원되었다. 다양한 전략 가운데에는 외국(투자 대상국)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활용되었으며 이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금도 이러한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투자 대상국을 직접 방문하는 주체는 중앙이 아닌 주로 지방단위가 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투자 유치가 경제발전에 중요하고 외국인투자 유치 대상에 중국 자본이 포함된다면 중국의 투자 유치 전략을 벤치마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지방단위에서 중국에 투자 유치 사절단을 파견하는 방법이다. 특히 국내 각 지방에는 입주 기업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공단도 다수 존재하는바 지방단위에서의 투자 유치 사절단 파견은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일본에서는 지방단위에서 중국 자본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고베시의 경우 대지진 이후 부흥계획의 일환으로 임해지역에 산업집적구상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는 중국 기업 유치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야자키현 센다이시는 '仙台中華街'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센다이 당국은 이 계획을 통해 약 200여개의 중국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센다이시는 동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중국인들의 내왕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관광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전략 또한 국내 지방단위에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차별적 입국 절차 간소화 고려

중국인들에 대한 국내 입국 절차 간소화는 여러 부처간 이해관계가 얽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투자한 기업인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 기업인들의 입국에 대해서는 차별적 간소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한·중 산업협력의 새로운 지평

중국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수출 시장,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자, 수출 견인차 그리고 산업공동화 유발 가능성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냈다. 이제 한국에 대한 투자자라는 새로운 모습도 띠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에 이러한 다섯 가지 모습만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을 것이다. 향후 중국이 또 다른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지 알 수 없다.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으며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가 활성화되면 세계 경제 혹은 동아시아 경제 분업 체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 또한 한국에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나타날 수 있다. 최근 중국 경제가 과열 현상을 보이는 것 또한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다. 중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인지 경착륙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중국 경제가 연착륙을 하면 연착륙을 하는 대로 경착륙을 하면 경착륙을 하는 대로 우리 경제에 파

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면 이러한 논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관심과 분석 그리고 대응책 마련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중국과의 경제관계에서 기존 패러다임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산업협력 방향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 하겠다. 